

◇밀레니엄 서울힐튼 소속 레스토랑 4곳 선정◇



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밀레가이드’의 첫 번째 에디션인 ‘The Miele Guide 2008/2009’에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식당 4곳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8/2009년 밀레가이드에 선정된 식당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13개 나라(일본,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의 레스토랑 320곳이다. 그 중에

서 대한민국의 레스토랑은 총 7곳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무려 4곳이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레스토랑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프랑스 식당 시즌즈,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 중식당 타이판 그리고 일식당 겐지가 그곳이다. 밀레가이드는 레스토랑 평가에서, 환상적인 실버웨어와 현대적 분위기의 광동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식당 타이판을, 프랑스 요리의 거장 박효남 총주방장의 예술적인 요리와 훌륭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식당 시즌즈를, 이탈리아 현지 조리장의 정통 이탈리아 요리와 유머를 잃지 않는 직원들의 캐주얼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를, 훌륭한 데판야끼 요리와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호텔의 후정이 있는 일식당 겐지를 각각 선정 포인트로 지적했다.